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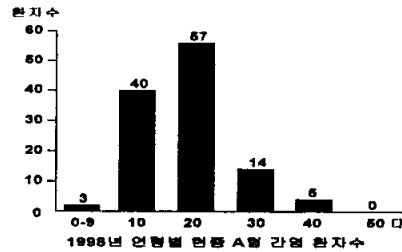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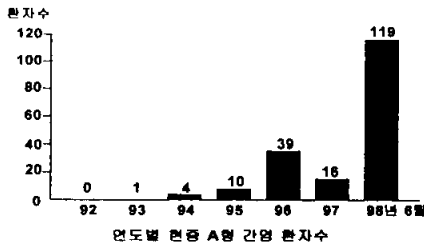
최근 7년간 현증 A형간염의 발생 양상

- 경인지역의 2개 대형병원 연구 -

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내과 김주현, 박동균, 김선숙, 최덕주

고려의대 내과 권오상, 박상훈, 연중은, 변관수, 이창훈

목적 : 연자들은 우리나라 30세 이하 인구에서 A형간염 항체(anti-HAV)양성율이 낮아지고 있어 A형간염이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주종을 이룰 것이라 1996년 보고한 바 있으며 1998년 상반기에 현증 A형간염의 발생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경인지역의 2개 대형종합병원에서 최근 7년간의 현증 A형간염의 발생양상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방법 :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및 고려대 구로병원의 최근 7년간 급성 간염 예들 중 IgM anti-HAV가 양성으로 현증 A형간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연도 및 연령별로 분류 관찰하였으며 임상양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 1) 현증 A형간염의 평균연령은 23.0세(5-55), 남녀비는 1.5:1이었다. 2) 최근 7년간 현증 A형간염의 발생빈도는 1995년부터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6년 및 1998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3) A형간염의 월별발생율은 1996년까지는 5-7월에 50%이상 발생하였으나 1997년 이후는 월별발생율의 차이가 없었다. 4) 내원당시 주소로는 50% 이상에서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발열, 황달 등을 보였고 대부분 자연치유 되었으나 1예에서 전격성 간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결론 : 현증 A형간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주종을 이루리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A형간염의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 성인에 발생한 급성 A형 간염의 임상 양상

이상구*, 이준혁, 고광철, 백승운, 이종철, 최규완, 손정일*, 박창영*

전우규*, 김병익*, 정을순*, 전성국*, 강인구*, 이병욱*, 허중*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제일병원*, 부천시중병원*, 동수원병원*, 울산동광병원*

성인에 발생한 급성 A형 간염은 소아 연령의 감염에 비해 그 임상 증상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연령에 발생한 A형 간염의 임상 경과에 대한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연자들은 최근 성인 연령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급성 A형 간염의 임상상을 알아보고자 1995년 1월 이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제일병원, 부천시중병원, 동수원병원, 및 울산동광병원에서 급성 간염의 임상적 양상을 보이며 anti-HAV (IgM)가 양성이어서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된 113예(남자 59예, 여자 54예)의 임상상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26.8(16-65)세이었고, 10대(16세 이상)가 13예(11.5%), 20대가 65예(57.5%), 30대가 32예(28.3%), 40대가 2예(1.7%), 60대가 1예(0.8%)이었다. 대상 환자의 직업 분포는 학생 또는 교사가 40.0%로 가장 흔하였고, 추정되는 감염 경로는 생선회, 조개류, 끓이지 않은 식수 등의 날음식을 먹은 경우가 45예(39.8%)으로 가장 흔하였으며 가족, 친지 혹은 동료간 감염은 6예(5.3%)에서만 의심되었다. 대상 환자 중 HBsAg 이 양성인 경우가 4예(3.5%)이었으나 anti-HCV가 양성인 예는 없었으며, anti-HBc(IgM)을 같이 측정한 66예에서는 3예(4.5%)에서 양성이었으나 모두 HBsAg 이 음성이었으며 임상적 호전과 함께 음전되었다. 임상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98.1%), 오심(95.6%), 황달(95.5%), 발열(94.6%), 구토(83.1%), 심와부통(80.9%), 진한뇨(70.2%), 우상복부 불쾌감(63.8%), 설사(37.1%) 순으로 흔하였고 검사소견상 총빌리루빈치가 10 mg/dl 이상인 경우가 15예(13.2%), 프로트롬빈 시간이 60% (1.5 INR) 이하인 경우가 5예(4.4%)이었으며 1예(0.9%)에서 담즙정체성 간염의 양상을 보였다. 특이한 임상경과로는 38°C 이상의 열이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 4예(3.5%), 간기능 검사소견이 4주 이상 비정상치를 보인 경우가 22예(19.4%)이었으며, 재발성 간염은 2예(1.7%)에서 관찰되었으나 모두 완전히 호전되었고, 고빌리루빈혈증이 1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전격성 간염 또는 사망에 이른 예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에서 발생하는 급성 A형 간염은 10-30대에 호발하고 극소수에서 재발성 간염 등이 병발하지만 대부분에서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경과를 밟는 것으로 사료된다.